

엠투아이코퍼레이션, 공모가 15,600원 결정

▶ 총 공모액 520억 원... 16일~17일 공모청약 진행

<2020-07-14> 엠투아이코퍼레이션이 수요예측을 마무리하고 오는 29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

스마트팩토리솔루션 전문기업 엠투아이코퍼레이션(대표이사 김정열)이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공모가가 15,6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엠투아이코퍼레이션의 공모금액은 52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상장 후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은 1,310억 원 수준이다.

이번 상장을 주관한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유한 점에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국내 주요 운용사들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다만 최근 변동성이 높은 증시와 IPO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시장 친화적인 가격으로 공모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엠투아이코퍼레이션은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필수적인 스마트HMI(Human Machine Interface), 스마트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원격 감시제어 및 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스마트팩토리솔루션(Smart Factory Solution)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번에 조달된 공모자금은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생산 인프라 확충,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엠투아이코퍼레이션 김정열 대표는 “엠투아이코퍼레이션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에 신뢰를 보내 주시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신 많은 투자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상장 이후 스마트HMI와 스마트SCADA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팩토리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엠투아이코퍼레이션의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은 오는 16~17일 양일간 진행된다. 일반 투자자들은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를 통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